

"네덜란드 밍크 농장 두 곳서 밍크 코로나19 감염"

기사입력 2020-04-26 22:54

네덜란드 당국이 26일(현지시간) 남부에 있는 밍크 농장 두 곳에 있는 밍크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밝혔다고 AP,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네덜란드 농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브라반트에 있는 이 두 농장의 밍크들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면서 "밍크는 호흡 장애 등 코로나19의 여러 증세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네덜란드 농무부는 앞서 이 두 농장의 일부 직원이 코로나19 증상을 보였다면서 사람에게서 동물로 전염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덜란드 농무부는 또 "현재로서는 가축이 코로나19 확산에 어떤 역할을 한다는 징후는 없으며 코로나19가 다시 인간에게 옮겨갈 위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지 당국은 해당 농장 주변 도로를 차단하고 사람들에게 농장으로부터 4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미국 뉴욕에서도 고양이 두 마리와 브롱크스 동물원의 일부 호랑이, 사자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실시간 국제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이날 기준 네덜란드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3만7천845명, 누적 사망자는 4천475명입니다.



박원경 기자(seagull@sbs.co.kr)

- ▶ [구독 이벤트] SBS뉴스 구독하고 선물 받아가세요!
- ▶ 코로나19 속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55&aid=0000810624